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2, 11, 12 / 제64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The Virgin of the Rosary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들이 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청하며 부른다.
사탄이 많은 영혼들을 죄와 파멸로 이끌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기도와 단식으로 새로이 하여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은총속에 살도록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다.
나의 아들 예수님을 찬미하여 그분께서 너희들이 칼망하는 평화와
사랑을 채워주시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주어 고맙다”

2012년 10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표지 설명 : 묵주기도의 어머니
(The Virgin of the Rosary)
원작 : 바르톨로메오 에스테반 무릴요
제공 : 교회성화 미술연구소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며...
-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
5.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 교황 베네딕토16세 -
8.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 스텔파노 곱비 신부 -
10. 메주고리예에서 주시는 하느님의 선들과 은총
- 요조 조브코 신부 -
14.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루네티 -
18. 성모님이 말씀하신 10가지 비밀이 실현될 시기에는...
- 발현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 -
19.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루네티 -
21.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성모님
- 김마리아 -
23. 어보, 내말이 들려요?
- 파스칼 그리슨 셀러시 -
26. 재정 보고 및 쉴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현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마을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성모님, 선교회 봉사자들의 희생과 기도를 축복하여 주소서.
 - 성소를 받고 입회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30년 동안 냉담증인 시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낙태아들의 영혼을 봉헌합니다.
 - 아내의 갑상선 암수술과 방사성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주소서.
 -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직장생활을 봉헌하오니 기도해주소서.
 - 000 의 폐암 수술이 잘 되어서 성당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성모님, 가족의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을 위하여 기도해주소서.
 - 허리와 다리 수술 통증 수술후 회복과 완쾌를 위하여 기도 청합니다.
 - 성모님, 아들 딸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 성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 7개월된 000의 심장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폐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이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식구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 000의 암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정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 멤피스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의 고통을 잘이겨내서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경제적 고난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아들 000와 함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 거룩한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 000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주시어 한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교회와 일터에서 봉사하며 평화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000의 앞을 주님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채워주소서.
 - 아이때의 상처로 지금 하느님을 미워하는 딸이 주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
 - 대장암 수술 두번했는데 재발하는 징후가 있으니 완치되도록 성모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 남편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고 같이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 하루빨리 직장을 잡을수 있도록 간구하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합니다.
 -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보내주소서.
 - 하느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 남편의 시각장애와 불면증 치유해 주시며 매일 미사 참례에 찬미 감사의 삶을 주소서.
 -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과 사랑을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 의부증으로 하루하루를 상상의 죽음과 공포에서 사는 000를 봉헌하오니 회복시켜 주소서.
 - 성모님, 제랄드 잔스의 영혼의 안식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평화와 보살핌을 청합니다.
 - 언니와 동생과 저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주님과 성모님의 뜻안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
- 11월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모님의 매일 빌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목자의 소리

세상것을 버리지 못한다며...

–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복음 강론 –

모든 것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을 모두 버리지 못한다면 세상 것을 차지하되 적어도 그것으로 세상에 매일 정도가 되지는 마십시오. 지상 것에 잡히지 않으려면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진 것을 지배하려면 물욕에 지거나 사물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세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며, 나그네 삶에서 현세 물질이 필요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미리 희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은 옆으로 밀어 놓듯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도달하려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물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행동으로 뿐 아니라 마음 속 생각에서 뽑아 버리십시오. 육체의 사욕이나 호기심의 발동이나 야심의 불길이 주님의 잔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타당한 일까지도 마음으로는 잠깐 건드리는 정도로 세상 사물이 우리 마음에 해롭지 않도록 육체에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히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향함으로써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면서도 마치 이용하지 않는 것같이 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외적으로 우리 생활에 봉사하도록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밖으로 유익한 것이 더 높은 것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상 사물은 애착의 대상이 못되고 다만 사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의 애착을 자극하거나 현세 사물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사랑한다면 더 좋은 일 즉 천상의 좋은 일을 기뻐하십시오. 나쁜 일을 두려워한다면 마음속에 영원한 나쁜 것을 상상하십시오.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그분을 열망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속히 모든 것을 차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신과 함께 한 천주로서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 그레고리오1세 교황은 540년에 로마에서 태어났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성 암브로시오, 성 예로니모와 함께 교회의 4대 박사 중의 한 명으로서 대 그레고리오로 불린다. 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하느님의 종 중의 종'이라 불렸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교황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이어져온다. 성 그레고리오는 교사들의 수호성인이다.) □



사랑의 성사[1]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 문헌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한 교황 권고로서, 교회 안에서 성찬례에 대한 열의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찬 신비와 전례 행위, 그리고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영적 예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7. 2. 22.)



성찬례, 믿어야 할 신비

교회의 성찬 신앙

6. "신앙의 신비여!" 축성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 말로 사제는 거행되고 있는 신비를 선포하고, 빵과 포도주가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실체 변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실재 앞에서 자신의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성체성사는 탁월한 '신앙의 신비'로서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성찬의 신앙이며, 특별히 성찬의 식탁에서 자라납니다. 믿음과 성사는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두 측면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로 일깨워진 믿음은 성사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은총 가득한 만남을 통하여 자라나고 커 갑니다. "믿음은 예식 안에서 표현되고, 예식은 믿음을 강화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대의 성사는 언제나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찬 덕분에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탄생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성찬 신앙이 더욱 활기에 넘칠 수록, 그들은 교회 생활에 더욱 깊이 동참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굳건하게 투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자체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개혁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어느모로든 연결되어 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성찬례

하늘에서 내려온 빵

7. 성찬 신앙의 첫 요소는 바로 하느님의 신비,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에서 이와 관련된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이 말씀은 하느님 선물의 가장 깊은 원천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성찬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의 궁극적 기원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하신 성자이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불어나게 하시어 군중을 먹이신 다음, 카파르나움의 회당으로 당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요한 6,32-33)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당신 자신, 당신의 살과 피가 곧 그 빵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뺏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삶이다"(요한 6,51).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거져 주시는 선물

8. 성찬례는 구원 역사 전체를 이끄는 사랑의 계획을 보여 줍니다(에페 1,10; 3,8-11). 거기서 삼위이신 하느님, 사랑 자체이신 분께서(1요한 4,7-8) 온전히 우리 인간 조건에 동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그리고 그 형상 아래(루카 22,14-20; 1코린 11,23-26), 하느님 생명 전체가 우리를 만나러 오며 우리는 그 생명에 성사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친교이십니다. 창조 때에 이미 인간은 하느님 생명의 숨을 나누어 받도록 부름 받았습니다(창세 2,7).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생명 그 깊숙한 곳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량 없이 부어 주시는 성령(요한 3,34) 안에서입니다.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히브 9,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 생명 자체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져 주시는 선물로서, 하느님의 약속을 넘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실히 순종으로 이 선물을 받고 거행하고 경배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신비'는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 우리도 동참하도록 은총으로 부름 받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함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랑을 보면 삼위 일체를 본 것입니다."

성찬례, 희생 제물이신 참된 어린양 예수님

어린양의 피로 맷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9.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은 파스카 신비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끌어 들이신(요한 12,32 참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필리 2,8)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 안에서, 깨뜨릴 수 없는 영원히 유효한 약속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유와 우리 인간의 자유가 결정적으로 만났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에 씻으셨습니다(히브 7,27; 1요한 2,2; 4,10).

다른 곳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분의 십자가 위 죽음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슬러, 인간을 들어 높이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행위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가장 철저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파스카 신비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아 맷으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6,28; 마르 14,24; 루카 22,20). 이러한 그분 사명의 궁극적 목적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하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미사에서 사제는 우리에게 제대에 나아오도록 초대하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 안에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 주시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맷으신 파스카의 참어린양이십니다. 성찬례는 이러한 근본적인 새로움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됩니다.

성체성사의 제정

10. 이제 우리는 최후 만찬 때에 세워진 성체성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이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1-

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근원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의 식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양의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이 예식의 식사는(탈출 12,1-28,43-51) 과거에 대한 기념이었지만, 앞으로 올 해방을 선포하는 예언적 기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해방이 결정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종살이와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해방에 대한 기억에서 나아가 훨씬 더 심오하고 근본적이며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을 청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선물을 소개하십니다. 찬미의 기도 브라카(Berakah)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단지 과거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들어 높여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승리를 선취하시고 또 현존하게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이 세상 창조에서부터 아버지의 계획 안에 정해져 있던 참여 양의 희생 제물임을 드러내십니다(1베드 1,18-20). 이러한 맥락에서 당신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과 부활이 지난 구원의 의미, 역사와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신비를 보여 주십니다. 성체성사 제정은 그 자체로는 폭력과 부조리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탁월한 사랑의 행위가 되고 인류를 악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키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형상이 진리로 변화한다

(Figura transit in veritatem)

11.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희생제 식사에 당신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식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상이 진리로 변화한다."는 교부들의 적절한 말씀은, 앞으로 올 것을 알리던 것이 이제는 진리 자체에 자리를 내어 주었음을 뜻합니다.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은 고대 예식을 결정적으로 능가하고 이를 완성 시

켰습니다. 진리의 양식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형상들을 완성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1코린 11,25)라는 명령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선물에 응답하고 그 선물을 성사적으로 표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당신의 희생제에서 태어난 교회가 이 선물을 받아 성령의 인도 아래 성사의 전례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선물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반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례 자체, 곧 그리스도교 예배의 근본적인 새로움 자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임무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강생하신 로고스를 단지 정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역동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끄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 안에 도입됩니다. 이 변화는 온 존재의 핵심에 파고들어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1코린 15,28)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

(다음호에는 성령과 성찬례가 연재됩니다.)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묵주기도를 5단을 봉헌해주세요.

- 태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 낙태 종식을 위하여…
- 낙태한 부모들의 치유를 위하여…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561 / 1996년 1월 1일

오늘 너희는 기뻐하며 내 '신적 모성'의 축일을 경축하고, 아들다운 신뢰로 나를 우러르며 교회와 온 인류에게 평화의 큰 선물을 내려달라고 간청한다. 과연 나는 '평화의 여왕'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 독생 성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나를 간택하셨고, 성자께서는 평화라는 귀한 은혜를 온 인류에게 가져다주시려고 내게서 나셨으니 말이다.

가난한 동굴에서 탄생하시어 구유에 누이신 내 '아기 하느님' 그분 자신이 바로 '평화'이다.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평화이다. 그분에 의해 속량된 인류가 생명과 사랑의 새로운 친교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 사이의 평화이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의 '어머니'도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의해 구속된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의 임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내 모든 자녀들의 삶의 변천을 '엄마'로서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특별한 모양으로, 세례성사 및 믿음과 '은총'의 선물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긴밀히 결합되어 그분의 '신비체'를 이루며 그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엄마이다.

나는 '교회의 어머니'이다. 나의 모성적 임무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회의 현세적 변천을 두루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고통스러운 여정을 계속하는 모든 상



황 속에서,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인 내 티없는 성심을 제시해 왔다. 내 티없는 성심은 너희에 대한 동정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을 지니고 있다. 내 티없는 성심은 너희에게 도움과 위로와 보호를 주려고 열려 있다. 내 티없는 성심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너희를 구원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길이다.

새해가 시작된 이때, 안전한 피난처인 내 티없는 성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도록 거듭 당부한다. 이미 광분하고 있는 악의 권세에 눌려 있는 이 가련한 인류에게,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중첩될 한 해이기 때문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피 흘려 주님을 증거하도록 불린 사람들이 들어온다. 첫 순교자 스테파노 – 그가 죽임당한 후 나는 내 어머니다운 팔로 그를 안았었다 – 에서부터 오늘날에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큰 군대가 내 티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온다. 산 제물이 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 증거자들의 군대가 모여 있다. '복음'을 깨닫고, 살고, 만인에게 선포하도록 인도하는 '빛'을, '지혜의 성령'을 받으려는 것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동정을 지키는 이들이 순백(純白)의 군대를 이루고 있다. 한평생 예수님을 한 분뿐인 정배로 삼은 그들은 나의 동정적 모성으로부터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분의 티없는 '빛'을 입은 그들은 '어린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

내 티없는 성심은 너희에 대한 동정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을 지니고 있다.

라다닌다 (*묵시 14,4).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복음적 권고의 길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그분께 바치도록 불린 이들이 몸을 피하고 보호를 구한다. 나는 내 티없는 성심의 정원에서 피어난 이 향기롭고 소중한 꽃들을 몸소 가꾼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예수께서 내게 맡기셨고 또 내가 각별히 총애하는 모든 사제들이, 나의 정성과 심려 속에서 길러지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으며,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르고, 본받고, 재현하도록 내 양육을 받는 것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그리스도신자 가정들이 피신한다. 허다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지고, 가정을 위협하는 무서운 악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것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어린이들이 나의 부름을 받는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순결과 기도의 분위기를 호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또 젊은이들을 불러 은총과 사랑과 성덕 안에 성장하게 하고, 죄인들을 불러 자비와 용서를 찾아얻게 하며, 병자들을 불러 건강을 얻게 하고, 임종자들을 불러 내 티없는 성심의 천상 문을 통해 지상에서 낙원으로 건너가게 한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는 특히, 내 자녀들인 너희 모두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보호하며 지켜줄 수 있다.

너희가 정화와 대환난의 결정적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여러 사건들이, 완전한 실현을 향해, 잇달아 빠르게 전개되리니, 너희가 겪게 될 바로 그 사건들이 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밝혀줄 것이다.

너희에게 닥칠 그 모든 일을 어머니로서 심려하며 바라보고 있는 나로서는, 교회와 온 인류에게 내 티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여기서만 너희가 나 자신의 보호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오직 여기서만 평화를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기뻐하며 희망의 빛나는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성삼위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 너희에게 주신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내 티없는 성심이니, 여기에서 너희는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당신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 (*묵시 21,5 참조)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이다 때문이다.

이 복된 희망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내 아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새해 벽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M

〈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013년 성지 순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 2009년 7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 **메주고리예**
2013년 1월 26일 ~2월 3일 (8박 9일)
- **폴란드, 프라하, 메주고리예, 드브로브닉**
2013년 1월 20일 ~2월 3일 (14박 15일)
- **폴란드, 프라하, 부다페스트, 이태리, 메주고리예**
2013년 4월 3일~ 17일 (14박 15일)
- **성모님 발현 32주년 기념 메주고리예,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
2013년 6월 22일 ~ 7월 1일 (9박 10일)

문의 : 610-366-9613 / 917-626-4314 (cell) / E-mail: qpmm.org@gmail.com / www.qpmm.org



때주고리예에서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기적의 사건들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조신부 : 저는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의료문서들을 들고 오는 분들에 대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곧 밝혀질 테니까요! 만약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당신이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은 본인이기 때문이죠. 그 분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과 동정녀, 천사들과 놀랍게 만난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의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 신부님, 이콘에서 기름이 흐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십니까?

요조신부 : 교회 안에서 늘 기적은 있어 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태리에서 온 순례자가 메주고리 예에서 구입한 작은 성모님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관할 교구장께서는 그 성모님상에서 흐르는 피

눈물을 만져보시고 놀라셨는데, 당연한 일이지요. 주교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내지 못하자 하느님의 은총이 개입하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 때부터 동료 주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압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현대과학을 통해 분석하고자 성모님상 속에다가 상당히 정밀한 현대 기계를 삽입시켜 성상내부를 상세히 조사했지만 성상 속에는 이런 피눈물을 흘릴만한 그 어떤 단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이 성상의 주인과 그 가족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성모님상은 후에 관할 주교님에 의해 교황청에 보내졌습니다. 성모님상이 옮기질 때 조출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 교구의 초청을 받아 제가 3 일 동안 강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구 주교님께서 교황님께서 주교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주교님들께서 믿으실 때까지 이 이상 무엇을 얼마나 더 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주교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무척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질문 : 교황님께서 그 성모님상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요조신부 : 그렇습니다, 동료주교의 중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던 다른 주교님들께 하신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교님들께서 믿으실 때까지 성모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얼마나 더 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런 교황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님께서는 다른 동료주교님들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얼마 뒤, 이 성모님 상이 메주고리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저는 주교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교님께서는 메주고리예를 선전한다는 비난을 들으신 뒤로는 "메주고리예" 혹은 "메주고리예의 동정녀"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작은 성모님상"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셨지요. 그러한 것들이 저를 참 아프게 했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 혹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 신부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조신부 : 치비따베끼야에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반나라는 이름을 지닌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요. 1700년 전 성 아우구스티노는 교회의 큰 문제였던 삼위일체의 신비가 지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이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뭘 하는 거니?" "이 조개껍질에 바닷물을 넣어 보려고 하는 중이예요!" 그 아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상상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성 아우구스티노는 삼위격에 담긴 신비를 철학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하느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 신앙의 스승인 그분은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신비를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 신비를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을 한 것이지요.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노의 체험에 의해 탄생한 이 고백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주교님도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그 해변을 산책하시면서 이 새로운 신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온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메주고리예를 지킬 수 있을까를 고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반대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교님께서는 더욱 침묵하셨어요. 지금도 그 성모님상은 공경을 받고 있지만 주교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른 주교님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성께서는 이 성모님상을 공경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메주고리예의 성모님상이 공경의 대상으로 허락되었

다면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 공경은 어떻게 금지될 수 있는가?"

질문 : 주교님의 침묵을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요조신부 : 네. 그 주교님은 당신의 손에서 옮고 계시는 성모님을 보셨음에도 그 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성모님의 눈물을 외면하신 거지요. 성모님께 큰 빚을 지셨다고 생각해요. 교황님께서 그 성모님 상을 공경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큰 다행이지요. 이제 아무도 그 성모님상을 만질 수 없지만, 그 성모님 상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성모님께 봉사

질문 : 성모님을 위한 봉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는지요?

요조신부 : 제 삶을 메주고리예에 생활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성모님의 부르심이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과 필요한 인내심과 항구함을 통해 응답하면서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응답했기 때문에 만족하며 21년 5개월 동안 (인터뷰는 2002년 12월에 있었음)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모든 결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현증인들이나 교회가 더 열심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듯이 저도 동정녀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봉사할 때 고하를 막론합니다.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은 강줄기를 따라서 함께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악보를 보면서 한 소리로 화음을 맞추는 여러 다른 악기들의 오케스트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전파와 증거, 복음화에 투신한 많은 사제들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것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모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메시지들에 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이 나무를 잘 키우고 싶다는 희망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 소멸되지도 않았고 불타서 전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 7, 19) 저는 처음부터 메주고리예 본당과 이 운동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운동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갔고,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선물과 은총으로 변모됩니다.

지 메주고리예를 만나고 메주고리예를 지니고 가며, 메주고리예에 대해 강론을 하고 메주고리예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제 기쁨은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어머니 동정 마리아는 제게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조신부 : 기회를 보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즉, 메주고리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알고자 할 때입니다. 메주고리예 운동에 사람들을 끌어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메주고리예는 이단이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메주고리예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고 있는 핵심을 들려주고,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나 충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예를 알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연대기적으로 정리해서 점차적으로,-여섯 명의 발현증인들에 관해 언급하고, 그들의 가족에 관해서 말한 뒤- 작은 본당의 역사가 어땠는지 설명하면서 작은 마을, 소수민족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세상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 가운데 계신 성모님의 현존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요. 한국인에게 그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런 선물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또 미국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안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평화와 안전함이 성숙한다는 것을 설명 하려고 시도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모든 자원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모든 무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미국인에게 단 하룻밤도 평안한 수면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우리들의 무능과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현대에 미래, 영원을 위한 응답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인간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서 어떤 인종이나 종교적 신념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만약 메주고리예가 사람과 가정,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우리들의 사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 속에서 근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 덕택입니다. 메주고리예는 말과 글, 이미지와 강론, 가르침과 우리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 전해야 할 선물입니다. 메주고리예를 받아드린다는 것은 새롭고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 활동과 메시지 선포, 고해성사등이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메주고리예를 중심으로 성모님의 도움과 은총과 격려를 받습니다.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선물과 은총으로 변모됩니다.

질문 : 로사리오기도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서한(교황 요한 바오로 2세, Rosarium virginis Mariae, 2002년 10월 16일)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요조신부 : 메주고리예를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황성하께서는 매일로사리오기도를 드리라는 성모님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발현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교황성하께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 천만의 순례자들과 일치하시면서 메주고리예의 열매를 알아보시고 단순하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은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질문: 사람들이 주위에서 격려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신부님께서는 현대 여성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자들보다도 여성들로부터 많은 이해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요조신부: 상호이해는 음악인들의 관점이죠. 리듬과 멜로디를 찾을 줄 알면 연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성들은 타인들을 더 배려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사랑을 제공합니다. 여성들이야말로 평화와 선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고 덕이 충만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은 맡은 임무를 조절하고 일을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균형을 잡을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어떤 이태리 여성이 생각나는데 열 대의 컨테이너와 열 명의 운전기사를 둔 분이었습니다. 용감하고 많은 재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컨테이너 기사들의 무선 라디오에서 기도를 주

메주고리예는 현대와 미래, 영원을 위한 응답입니다.



도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여사장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 채널을 돌려서 음악 듣는 것을 더 좋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화에 주력했습니다. 지금 수 천 명의 컨테이너 기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윤락녀들과 부랑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사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다른 삶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과 일 속에서 이런 종류의 많은 여성들을 만납니다. 지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로서 함부로 배반하지 않고 충실히 끝까지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복음이나 성령의 영감에 의해 활동하는 여성들이고 사도들이 된 분들입니다. 동정 마리아의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기꺼이 응하는 분들입니다. 사무실에서 메주고리예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받아 드리고 시간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항상 섭리에 맡길 줄 아는 여성들이야말로 희생할 줄 아는 여성들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교회구조를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교회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약 90%가 여성입니다. 그들은 사제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주교님들께 메주고리예를 전하며 교회의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모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듯, 여성들은 자신들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줄 압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위해 결심할 때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질문 :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욱 평화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훨씬 나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 신부님은 생각하십니까?

요조신부 : 그들 본성입니다. 여성 안에 내재하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고, 자식을 키우며 아이가 잠들도록 흔들어 주면서 평화를 전해주죠. …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여성은 한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내어주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엄마를 먹고 자라는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술 속에도 여성은 살아 있어요.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고 사랑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성 안에 내재하는 절대적인 선물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줄 때 기도가 그 형태를 갖추고 영성과 사랑, 믿음과 평화가 탄생합니다. 기도 공동체,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기도회는 대학생들, 의사들이나 교수들…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와 여성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들의 기도는 훨씬 딱딱합니다. 여성들처럼 진실하긴 하지만 감미로운 스침이나 부드러운 이슬같은 기도로 승화시킬 줄을 모르는 거지요.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악대교구)
자문위원회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웹관리자	: 임 베드로,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박 소화 데레사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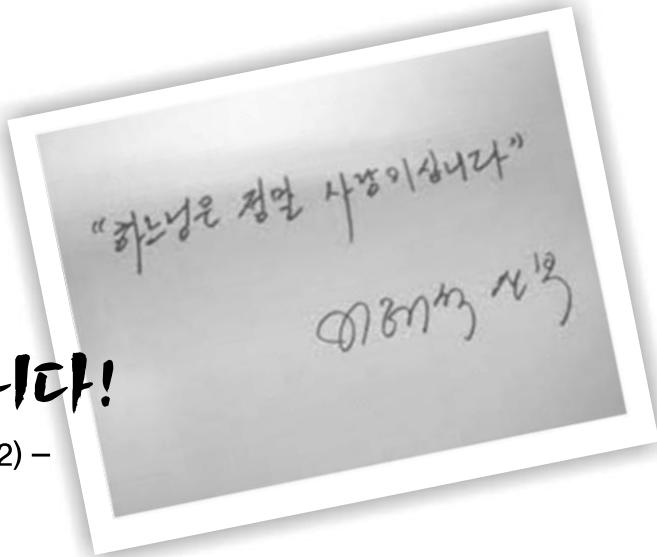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70-4656-3824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메주고리예는 어떤 곳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2) -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번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질문 : 당신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느낍니까?

마리야 : 저는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성모님을 통하는 것이 어떤 다른 방법보다 예수님과 더 쉽고 빠르게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질문 :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까?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발현 초기에는, 우리 삶의 중심은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질문 :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야 :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질문 :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커다란 신비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그토록 많은 세상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야 :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바른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쳐 주고자 애쓰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더 잘 알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늘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까?

마리야 : 네, 저는 예수님과 마리아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늘 기도하고 싶어 하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리야 : 우리가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일을 기쁘게 봉헌하면, 그 일은 큰 기도가 된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기쁘게 봉헌하면 하느님

사랑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대화의 한 형태입니다. 대화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쁘게 봉헌한 일은 어떤 형태이든 기도가 됩니다.

질문: 즐겁지도, 맘에 들지도 않는 일이라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마리야 : 네, 우리는 언제나 일상생활의 일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희생으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에 정신을 쏟는 대신, 그 일은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런 희생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더욱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질문 : 마리야,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우, 하느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으며 혼인성사로 이루어진 결혼을 유지하면서, 하느님께 희생으로 봉헌하라고 제안하겠습니까?

마리야 : 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로 가시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갈바리아로 가시게 한 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분을 갈바리아로 가시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문제에 대해 응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선택을 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질문 : 마리야, 하느님께서 왜 당신을 창조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야 :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질문 :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야 :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질문 : 하느님께서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분께 상처를 드릴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까?

마리야 :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시고자 당신 아드님까지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창조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가 있으므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지 않기로 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질문 : 마리야, 당신은 199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발현산에서 성모님을 뵈었습니까?

마리야 : 네, 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름다운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세 명의 천사와 함께 발현하셨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산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마리야 : 네, 성모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질문 :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 주어서 무척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질문 : 마리야, 성모님께서 누구의 권한으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야 : 네, 성모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은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이곳 메주고리예에 보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곧 성체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천국의 여왕이시며, 우주의 여왕이십니다.

질문 :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리야 :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모든 피조물의 여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문 : 마리야, 성모님께서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마리야 : 네, 성모님께서는 세계 젊은이들의 회개를 위해 다가올 몇 년을 봉헌하셨습니다. 미사의 끝 부분이나 기도 모임에서, 세상의 모든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 축복을 전해 주기 바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큰 자기희생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마리야,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마리야 : 네,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질문 : 록뮤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록뮤직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 마리야, 음악에 대한 소견이 있습니까?

마리야 : 네, 제 생각에는, 록뮤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악마적 메시지들이 이 록뮤직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마리야, 악마는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찾아내야 하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마리야 : 악마는 매번 다른 형태로 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질문 : 그것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악마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마리야 : 기도하십시오.

질문 : 기도요?

마리야 :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 마리야,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리야 : 성모님과 만남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은 이전의 만남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질문 :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마리야 :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모든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줍니다.

질문 :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야 :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나 친지들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을 수 없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와서 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지만 치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야 : 질환이나 병은 일종의 비밀스런 신비입니다.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제가 내일 죽더라도 어디에 가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죽음

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질문 : 갈색 스카풀라를 착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믿나요?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악마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 성물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일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리야 : 네, 모든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질문 : 묵주기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유전통인데, 전 인류에게 묵주기도를 하도록 부탁하신다는 말입니까?

마리야 : 네, 묵주기도를 하라는 것은 성모님의 특별한 부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종교와 신념을 불문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하십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연재 됩니다.)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써 너희가 나의 사도로서 인내하기를 청한다.

나는 나의 아드님께서 너희에게 하느님의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분별하기를 그리고 너희를 나의 아드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강력하게 거부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아드님을 따라 천상 아버지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하느님 사랑의 증인되는 크나큰 은총이 주어졌단다.

너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엄마인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다오. 나는 어머니로써 나의 자녀들이며 사도인 너희들에게 의탁하고 싶구나.

너희의 단식과 기도는 너희를 위한 나의 기도의 길을 열게 하여 나의 아드님께서 너희의 곁에 함께하시며 너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게 된단다. 이 모든 것들이 목자들 없이는 가능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다오. 고맙다." 2012년 11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미리야나는 성모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을 축복하시며 갖고 온 모든 성물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전하였다.)



성모님이 말씀하신 10가지 비밀이 실현 될 시기에는…

– 발현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 –

메주고리예의 발현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는 성모님이 말씀하신 10가지 비밀이 실현 될 시기에는 가톨릭 교회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큰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그에 대한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우리들이 성모님의 계획을 모른다 해도 그분의 지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 발현 목격증인들에게 주신 비밀이 실현되는 때가 되면 가톨릭 교회가 겪을 시련과 시험은 커질 것입니다.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는 2012년 8월 14일 라디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징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마리아 국장인 리비오 판자 신부와 발현 목격증인 이반의 대화입니다.

리비오 신부 : 이반, 당신은 비밀이 실현되는 시기에는 교회와 세계에 큰 시련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반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로서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리비오 신부 : 그 때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시험을 받는 시기일까요?

이반 : 이미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오 신부 : 교황 베네딕토 16세께 '신앙의 해'를 발표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성모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이반 : 교황님은 성모님께서 직접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반은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진행되도록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성모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반은 라디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성모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교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본당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함께 나의 계획을 실현하고 싶다. 그러기에 너희는 선을 선택하여 죄와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모님의 지향이 실현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

(www.medjugorjetoday.tv 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루네티 -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루네티는 성모님께서 천상의 삶을 살도록 반복하여 요청하신에 대하여 말하며, 자신이 천국을 본 이후에는 이 세상의 삶은 연옥과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목격증인들은 우리가 본 천국에 이르기를 희망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981년 메주고리예 목격 증인들은 천국을 보았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성모님의 9월 25일 메시지를 전하며 라디오 마리아에게 말한 주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자연안에서 풍요로운 색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열고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는 영원한 삶으로 창조되어져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니 천상의 것들을 갈망하여라. 또한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시어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는 것이란다. '나의 자녀들아, 오직 하느님안에 너희의 평화와 희망이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주어 고맙다." (2012년 9월 25일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라디오 마리아 담당자 리비오 판자가 신부는 목격증인 마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였다.



리비오 신부 :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느끼셨겠지만 올해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 천국을 상기 시켜줍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일까요?



마리야 :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으므로 성모님께서는 초기의 주제로 돌아 오신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무엇 보다도 하느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심껏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격증인 마리아는 성모님께서 천국을 살라고 하시는 반복되는 요청을 전하면서 천국을 본 이후 지상이 연옥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비록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목격 증인들은 천국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여 최근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리비오 신부 : 천국이나 지옥 혹은 연옥의 중간이 있나요?

마리야 : 인간 개개인은 지상의 삶을 통해, 각기 죽음 이

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에 이릅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 발현 초기에 이 가톨릭의 가르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의 삶이 마치 신앙의 삶과 분리된 것처럼 혹은 완전히다른 삶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 없이는 미래도 영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매번 반복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주제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리비오 신부 : 목격증인들은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본 천국을 그리워하나요?

마리야 :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5분 동안 성모님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성모님을 뵙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에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미사 때, 먹을 때와 잠을 잘때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비오 신부 : 마리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보았습니다만, 성모님과 함께 있는 5분 동안 당신은 또 다시 천국에 있게 되는 거겠죠. 성모님은 '지상에 오신 천국이시니까요. 성모님을 뵙 이 후에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 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리야 : 마치 연옥에 있는 것 같지요. 신부님,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다시 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답니다. 더구나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지요.

리비오 신부 : 우리는 성모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모님이 목격증인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목표가 천국임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시죠. 하지만 매번 성모님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성모님께서 아름다운 꽃 색깔과 같은 자연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자



연의 신비함을 느끼도록 초대하십니다.

마리야 : 네, 아마 자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자연의 빛깔과 같은 것에 특별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성모님께서는 '나는 영원에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것을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리비오 신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사리오 성월인 10월이 시작되는데요. 성모님께서는 매일 모든 신비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야 :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매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성모님께로 열리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성모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중재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주기도가 반복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만 성모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방법으로 탄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족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모여 기도를 할 때 거룩해 질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특히 가족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둠속에 있게 됩니다. █

(www.medjugorjetoday.tv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성모님

제 67차 순례자 김마리아 / 아리조나

내가 성지순례를 가게 된 이유는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작년에 메주고리예로 성지순례를 갔다오신 이 후에 저에게 계속 그곳에 가야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거니와 고생할 생각하니 정말 가기가 싫었지만 어머니에게 계속 거절하는건 불효라고 생각을 하여 할 수 없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함께 순례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9살에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한 달에 3번정도 미사에 참석하고 묵주기도는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 그 정도면 가톨릭 신자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서는 영성체 교리 이후에 한번도 읽지 않았으며, 고해성사는 10여년 전에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례를 가기전에 메주고리예에서 보여지는 여러가지 기적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한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갈때부터 계속 불안했습니다. 뉴욕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데 태풍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했으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자매님의 가족은 스페인에서 티켓이 없어서 그 다음 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났고 바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그날 밤에 우여곡절 끝에 모든 순례 일행들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자매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짜증났던 기분이 이상하게 풀어졌

습니다. 그 다음날 발현 31주년을 기념하는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분들과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체 조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성모님께서 발현산에서 발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제단사진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 제단 중앙에 있는 성모님 두루마리로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두눈으로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진에는 짙은 한 줄기의 빛이 성모님 사진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모든 미사와 기도에 정성을 다해 참





메주고리예 저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였습니다. 신부님에게 바로 달려가 10년만에 고해성사를 볼때는 웬지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묵주를 들고 청동 예수님상옆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청동 십자가상 무릎에서 흐르는 물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발현산을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왔으며, 새벽 3시에 십자가산을 순례자 분들과 함께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산 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감돕니다. 일출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꼭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십자가산을 내려 올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서 다른 순례자분들을 뒤로 하고 먼저 내려오게 되었는데, 올라갈 때는 1시간이 넘게 걸렸던 산이 내려 올때는 거의 뛰어서 내려오게 되어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이 너무 가벼워서 마치 평지를 뛰던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성체조배를 하던 두 시간 동안 무릎을 꽂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제단 중앙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두 시간 동안은 오직 성모님과 저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렇게 마음 깊이 기도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성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저한테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신기해할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이렇게 제가 체험한 것과 같이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끼는 기적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9일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누가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서서히 바뀌고, 저의 신앙심의 뿌리가 제 내면의 깊은 곳으로 심어지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주고리예에 다녀 온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옵니다. 저는 이것이야 말로 바로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의 자애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성모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메주고리예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날을 기원하며 하루 하루 성모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체험담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여보! 내 말이 들려요?

14년간 앓던 불치병 환자가 성체를 모시고 치유되다!

벨지움에서 온 순례자 파스칼 그리슨 셀머시 자매는 지난 14년간 치유가 불가능한 희귀병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와 중증의 병으로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여 살아왔다. 8월 초, 메주고리에 야고보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어떤 강한 힘의 활동을 느끼며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2012년 8월 3일, 메주고리예의 저녁 미사에 불치병으로 휠체어에 누워있는 한 순례자가 있었다. 그 날 미사에 참석한 수 많은 사람들은 휠체어에 있던 그녀가 영성체를 모신 후, 불치병에서 치유 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파스칼 그리슨 셀머씨는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한 희귀병인 백색질뇌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왔다. 그녀의 병은 지난 14년 동안 점점 악화되어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오기 전인 몇 년 간은 말 조차 할 수 없었다. 아내이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그녀가 14년동안 앓고 있던 불치병에서 치유받을 때, 그녀와 남편은 성 야고보 성당 뒤편에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몇 년전 남편 데이빗과 저는 성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이끌림으

로 저희를 메주고리예로 긴급히 부르고 계심을 느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와 남편이 똑같은 강렬함을 체험하면서 이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2012년 8월 3일, 늦은 오후 그녀는 며칠째 계속된 메주고리예 순례를 하면서 몸이 몹시 지치고 피곤했지만 남편과 함께 저녁 미사에 참석하였다.

파스칼 그리슨 자매는 그날을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날은 몇 킬로나 되는 무거운 산소 호흡기를 제 무릎에 놓고 오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아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성당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에 가득차서 저는 성령께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했지요.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성령께 바치며 새로와지기를 원했어요.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실 시간에 남편은 제가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휠체어를 밀어서 저를 성당 뒤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체를 모시고 통로쪽으로 오시던 신부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서 저와 제 남편앞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신후, 다른 분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지요.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

오랜 세월 움직이지 않아 굳어 있던 내 다리 근육들이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매우 강렬하고 달콤한 향기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강렬한 힘이 내몸을 통과하는 어떤 움직임을 느꼈어요. 그것은 뜨거운 열이 아닌, 어떤 힘이었답니다. 그리고 곧, 오랜 세월 움직이지 않던 내 다리의 근육들이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벨지움에서 온 순례자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적을 만일 당신께서 제게 허락하고자 하신다면 확신을 주세요. 제가 남편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곤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떤 향기가 나지 않아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코가 좀 막혀서..! 제가 자연스럽게라고 말한 것은 제 남편은 몇 년동안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내 말이 들려요?' 그때 저는 하느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믿음으로 다리를 바닥에 대면서 힘을 주어 훨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치유가 일어났음을 깨닫고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거지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몸은 시간이 갈 수록 매일 호전되었습니다. 병을 앓는 동안 저는 잠속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된거지요. 7년 동안 병으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했던 제 몸이 다시 움직이면서 느끼는 통증이 있을 뿐입니다!"

파스칼 그리슨 셀머시는 불치병을 치유받고 더 이상 예전의 고통이 없지만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저와 남편의 바램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하여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믿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내이자 엄마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히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지요." □

(<http://www.medjugorjetoday.tv>에서)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방에 초대합니다.

보내주시는 미사 및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 * 매주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때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 메주고리예 빌현 목격증인들을 통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6시 45분)

보내 실곳 : 평화의 모후 선교회 기도방
www.qpm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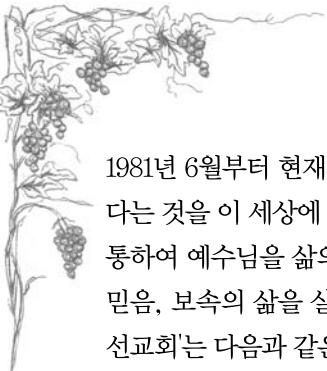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평화의 모후 선교센타(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10-8633-3540

e-mail: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예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예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예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선교회의 신부님들께서 회원들을 위하여 매일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매월 첫토요일 성모 신심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12년 동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는 "평화의 모후" 소식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 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평화의 모후" 소식지는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으로 지난 12년 동안 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미주 전 지역과 한국, 러시아, 카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 등의 전 세계에 성모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가톨릭 비영리법인이며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ELLS FARGO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 농협 은행
계좌 : 351-0404-6506-03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070-4656-3824

E-mail: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바오로, 강부영, 강성기, 강아벨로가, 강영애, 강찬구, 강현정, 고민자, 고아네스, 권금옥, 권중세,
김건일, 김계숙, 김글라라, 김단심, 김데레사, 김마데라, 김마르따, 김명상, 김명숙, 김명자, 김명희, 김미연,
김미형, 김봉녀, 김상식, 김세록, 김세실리아, 김소영, 김글라라, 김숙자, 김숙희, 김안나, 김안숙, 김연이, 김영삼,
김영미, 김영옥, 김영자, 김원경, 김은옥, 김재국, 김정선, 김정연, 김정자, 김준애, 김진주, 김현정, 김혜숙,
김호숙, 김효안, 김효정, 남순복, 노마리아, 노안나, 류숙자, 마리아막달레나, 문로사리아, 민병돈, 민정숙,
민카타리나, 민혜례나, 박경희, 박마르타, 박명기, 박병칠, 박선희, 박소피아, 박순덕, 박영실, 박영화, 박정자,
박정희, 박종옥, 박혜선, 박휘자, 방수희, 배정희, 백수산나, 백안셀모, 변형숙, 서기산, 서남숙, 서애자, 서영희,
서정열, 송모니카, 송정순, 송종식, 송카타리나, 신세실리아, 신은희, 신필남, 신현철, 신혜경, 신혜영,
심세실리아, 심현미, 심혜란, 안선주, 안영순, 안춘식, 양유스티나, 어성숙, 엄토마스, 연숙 루피나, 염정호,
오창석, 오하린, 원명희, 원영주, 유베로니카, 유명희, 유상숙, 유제영, 유혜란, 윤경이, 윤길자, 윤석현, 윤안젤라,
윤일모, 이강임, 이경, 이경미, 이경성, 이경자, 이계숙, 이다영, 이동우, 이바오로&마리아, 이동윤, 이동희,
이마리아, 이분숙, 이석영, 이순세, 이순자, 이승무, 이연기, 이영근, 이영배, 이영분, 이영신,
이원혜, 이윤영, 이은수, 이은영, 이은정, 이장임, 이재열, 이정우, 이정희, 이종천, 이지연,
이찬기, 이현우, 이호인, 임루시아, 임미카엘, 임성빈, 임수빈, 장금실, 장금옥, 장기선,
장명세, 장인화, 장태종, 장한순, 장귀비, 잔슨윤숙, 전숙현, 전종례, 전해드워, 정리디아,
정마리아, 정명좌, 정병숙, 정옥순, 정재항, 전현숙, 정홍영, 정희순, 젠스호널, 조모니카,
조성희, 조안나, 조혜경, 주숙은, 진도미니카, 진은필, 차은영, 채일형, 최명숙, 최미카엘라,
최안나, 최혜선, 최희선, 최희순, 친모니카, 한밸라렛다, 한숙희, 한정미, 한유리안나, 한정애,
한혜식, 허남기, 허아네스, 현경희, 현유스나, 흥제시카, 흥크리스티나, 황계자, 황계희,
황금자, 황영란, 황옥희, 벤쿠버 성 김대건 평화의 모후 기도회, 메릴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Tak U. Lee, Mary Lee, Gregory Lee, Chong Suk Dardy, Kyung Han, Chung Soon Lee,
Lee Helen, Agatha Philips, Glorio Greenwood, Jae Kang, Shendelman Chung, Mee Kang,
K. Larcenaire, Eileen Cho, Hee Lee, Yun S Shon, David Burger, Okson Baker,
Sang & Choon Ahnn, Henry Yerger, Lisa Rigoni, Kim Steve, Min Kumi, Hae Kim,
Kwak Rosa Lee, Joo Kim, Eileen K. Lee, Michael Ahn, Chung Shendelman, Liane Shim,
Hyoung Kiel, Sun H Lamb, David Jang, Susan Garner,

64호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평상심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며 인내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아빌라의 예수의 데레사 –



미동부 최고의 어학원

디스커버리 어학원

DISCOVERY | QUEENS



ESL
TOEFL
GRE / GMAT
I-20 발급
F-1 비자 발행

- * 테마별 프로그램
- * 비즈니스 분야 집중 교육
- * 장기 유학을 위한 외국어 습득
- * 외국 문화 체험을 위한 단기 어학 연수
- * 최단 1주일부터 몇 개월의 다양한 어학 기간 선택
- * 해외학교 진학을 위한 언어 연수
- * 영어의 기초, 혹은 스피킹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분들

현지 생활 속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외국어에 대한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로케이션
쾌적한 시설과
차별화된 시설운영

www.discoverynyqueens.com

1997년 설립되어 최고의 강사진과 강의로 명성을 이어온 디스커버리
어학원이 뉴욕 플러싱에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소재 어학원 중 몇
안되는 ETS TOEFL / TOEIC 시험 센터 인증을 획득한 기관입니다.
미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I-20 발급 학교로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미국
오시는 분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비자 변경하시는 분 상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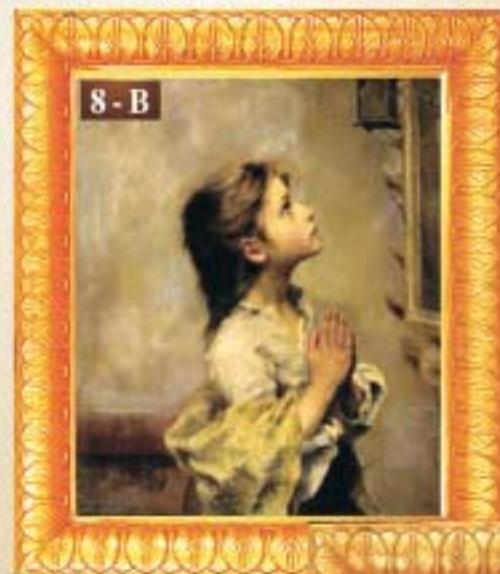
36-26 Main St. Suite #3X, Flushing, NY 11354

E-mail: discoverynewyork@gmail.com

718-888-9976

Fax: 718-888-9664

아름다운 성화로 마음의 평화를!



- * 성당용 / 가정용 성화 제작 전문
- * 한국에서 제작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성화재질과 최고 품질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 * 성당용 자비의 예수님 성화와 묵주 기도의 어머니 성화를 주문하시면 최고급으로 제작된 103위 순교 성인화를 증정합니다.

성화 세계 교회 미술 연구소

대표 : 정부현 그레고리오

02-421-8773 / 010-7979-3824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52-1003

E-mail: jesu@jesu.asia

www.jesu.asia